

석유화학, 1인당 영업이익 “싹쓸이”

호남석유화학 9억원으로 2위 올라 ... 5-9위도 석유화학·에너지 독식

2011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은 매출 측면에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영업이익 등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.

상장기업협회에 따르면,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649개사의 국제회계기준(IFRS) 연결재무제표 기준 2011회계연도 1인당 매출액은 16억7900만원으로 2010년보다 11.71% 증가했다.

반면, 1인당 영업이익은 1억1500만원으로 3.98% 줄었고, 당기순이익은 8200만원으로 14.00% 감소했다.

매출액이 늘어난 만큼 생산성을 높이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.

1인당 영업이익 및 증감률은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길이 막힌 운수·창고업종이 900만원으로 89.15%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, 전기가스업종은 2500만원으로 81.48% 줄어들어 2번째로 감소폭이 컸다. 의료정밀업종도 1000만원으로 81.30% 감소했다.

유가증권시장 1인당 영업실적 순위(2011) (단위: 100만원, %)

순위	회사명	매출액	영업이익	순이익
1	고려아연	5,421	941	696
2	호남석유화학	9,475	900	683
3	키스톤글로벌	6,288	787	1,115
4	현대글로벌비스	14,777	719	555
5	금호석유화학	5,077	662	427
6	KP케미칼	7,607	638	498
7	S-Oil	12,172	623	454
8	SK가스	26,951	610	402
9	카프로	3,313	603	443
10	STX	15,224	598	567

를 나타냈고, 유통업도 8700만원으로 35.63% 늘어났다.

1인당 영업이익은 고려아연이 9억41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, 호남석유화학 9억원, 키스톤글로벌 7억8700만원, 현대글로벌비스 7억1900만원, 금호석유화학 6억6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전기전자업종도 1인당 영업이익이 6800만원으로 31.48% 줄었고, 의약품은 2900만원으로 23.76% 떨어졌다

반면, 건설업종과 비금속업종은 흑자 전환했다.

금융업종은 생산성이 가장 높았고 1인당 영업이익도 최고를 기록했다.

금융업종은 1인당 영업이익이 7억900만원으로 40.56% 늘어 가장 높은 증가세

<화학저널 2012/05/29>